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기도로 준비를

세계 청년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립하고 시대적 사명감을 일깨우고 영적 각성을 일으켜 자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게 할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영세 장로)는 이 대회가 기도 속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을 발표하였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향도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충현 청년들이 이 대회에 온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기도로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기도제목

1. 모든 청년들에게 본 대회를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민족관, 세계관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2. 모든 청년들에게 자국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3. 본 대회를 통해서 모든 청년들을 세계 복음화에 구체적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4.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협력

하게 하옵소서.

5. 세우신 강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지도력을 개발하게 하옵소서.

6. 본 대회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7. 본 대회의 책임을 맡은 일꾼들이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B집사님,

우리 교회가 세계를 교구로 삼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기도한 대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국내외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권과 동토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음 녹듯이 녹아져 이제는 복음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옥토가 된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땅에 씨를 뿌리러 가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만 대답하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귀는 이단 종교의 씨를 뿌리기에 하나님의 종들보다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충현교회로 하여금 눈을 들어 동구권을 보게 하시고 지난 해 제1차 김치(KIMCHI) 세미나에 저들을 초청하여 놀라운 체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금번 동구권복음화대회를 시작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열매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무명씨로 자기를 숨기면서 미화일만불을 섰던 선교현금으로 바치신 집사님께 제가 무엇을 말씀해야 할까요.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들과 큰 수입없이 사시는 집사님의 형편을 모르는 바 아닌 터에 이 현금이 더욱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염전 두 렷돈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이 현금을 크게 써주실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동구권의 복음사역에 열매가 맺힐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7. 21

이 중 윤 목사

14일 '91하기 농어촌전도대 파송예배 "전도는 나의 사명" 결의

'91 하기농어촌전도대 파송예배가 지난 7월 14일(주일) 저녁 7시에 8개 전도대 총 119명의 전도대원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에서 드려졌다.

이중윤 위임목사는 대원들에게 "이달을 가든지 복음의 씨를 뿌려 민족 복음화와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하루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헌신 봉사할 것"을 당부했으며, 전도대원들은 "전도는 나의 사명"임을 마음 속 깊이 되새기면서 복음을 위하여 전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들은 지난 20일(토) 훈련 및 기도회를 가졌으며, 전도대별 모임을 통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다.

전도대는 7월 29일과 8월 5일 두 차례로 나뉘어 전도지로 떠나게 된다.

지교회 설립 위한 대지 구입

우리 교회는 무교회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지난 7월 16일(화) 경남 밀양군 무안면 중산리 647번지의 대지 343평과 충북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의 대지 109평과 180평을 구입하고, 중산충현교회(담임 김영일 목사)와 서송원 충현교회(담임 임춘화 전도사)를 설립기로 하였다.

이 두 지교회를 비롯한 그밖의 지교회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불모지가 옥토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충현의 성도들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사회

8월 8일부터 수양회

권사회(회장 전순자 권사)는 오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현기독교원에서 수양회를 개최한다.

권사회수양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엡5:18)라는 주제 아래, 송태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교회 524명의 권사들은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명실공히 "기도의 어머니"로서 재무장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28일 비전2000운동 제1차 설명회

청년들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시키고,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를 영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비전2000운동의 제1차 설명회가 오는 28일(주일) IV부 예배 후, 참모장 최

석주 장로의 주제 아래 본당에서 열린다. 이 모임에는 교구장, 지도교역자, 지역장, 부지역장, 협력다락방장, 다락방장, 권찰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대학부 20일 심포지움 개최

대학부(부장 이훈 장로, 지도 김해규 목사)는 지난 20일(토) 갈릴리움에서 91년도 제2회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대학부 심포지움은 1년을 네 학기로 나누어 한 학기가 끝날 때 마다 열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해

온 성경 연구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움은 그 동안 공부해온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퀴즈대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퀴즈대회가 끝난 후에는 만나홀로 장소를 옮겨 식사를 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동구권선교시찰단 독일에 무사히 도착 위임목사 루마니아 교회에서 설교



지난 15일(월) 오후 1시 25분 김포공항을 출발한 이중윤 위임목사 등 충현교회 동구권 선교시찰단은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 저녁 7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

항에 도착하여 육호기 독일 선교사의 영접을 받았다.

이들은 다음날 루마니아 부카레스트로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개혁신교회 칼비네움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서 이중윤 위임목사가 설교를 하였다. 그곳에 머물면서 시찰단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준비해간 성경을 전달하고, 루마니아의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협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6부 은평복지천사원 방문

초등6부(부장 손경수 장로, 지도 정기봉 목사)의 학생과 교사 대표 14명은 지난 7월 17일(수) 은평복지천사원을 방문하여 원생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부터 전개해왔던 사랑의 강통모임 운동을 통하여 모아진 강통과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초등6

부 학생들은 이번 사랑의 강통모임 운동을 통하여 "이웃을 네 몸과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은 조만간 원생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전도 집회를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하면서 유대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성경 강해

이 종 윤 목사

발을 씻기신 예수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겔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13:2~15)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들에게 여러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가시기 바로 직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롯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므로 실물 교육을 하셨습니다.

1.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13:15)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모본을 보이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지도사들에 의해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머지 않아 예수님은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

배신자가 되어 주님을 팔아먹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교만한 사단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거리라 하도다” 계명성의 특징은 파괴입니다. 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다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교훈

첫째,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으신 분이십니다(요13:3). 그것을 제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신적 기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까(요13:3). 예수님께서 흠으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가는 인간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미래 영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요13:3).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디로 가실 분이신지를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3. 발을 씻기신 이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모범을 보이시기 위하여 또는

리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요13:12) 이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앉게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생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요13:6~11) “이미 목욕한 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은 중생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두 번 거듭날 필요가 없다는 말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생업까지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쫓겠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장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하여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젠 별 수 없어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아주 이상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까지만해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는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인 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하나의 기행(奇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송두리째 뒤집어놓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한 마음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겸손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요13:2)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을 따라 행할 때 우리들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가롯 유다와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진실한 분이시고, 가롯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하나를 혼란으로 집어넣고서 우리들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자신을 비견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또한 사단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확대를 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이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5~8) 사단은 하나님과 자신을 비견해서 그 위에 올라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좇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13:14) 이 말씀을 읽고 부활절이 되면 세족식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교육상 필요한 것이지만 세족식 자체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예식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을 실천해야

자기 계시를 위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지상세계 전체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겔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요13:4,5)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들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는 말은 일할 준비를 갖춘 종의 형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을 담아 씻기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

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한 번 거듭난 것으로 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성도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범한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발까지 깨끗하게 하여 잔치집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족식을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의 도, 겸손을 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온유한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종의 도를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놀라운 행위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진실한 천국시민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얼마 전 어느 선교잡지에서 보았던 한 장의 사진은 내게 더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소수 이기는 했지만 일본 주재 한국인 선교사와 함께 한국 교회를 찾은 일본교인들이 울동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였다. 매사에 종교성이 강하고 수만을 헤아리는 신사(神社)와 살아 있는 인간을 천황으로 모시며 수백만의 우상을 섬기는 일본이 변화하고 있으며 일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진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된다. 역사 속의 한·일 관계는 침략과 수탈로 규정되고 있다. 유구한 문화적 전통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피압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역사는 지금도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침략당하는 관계로 전환되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1,000 만을 헤아리는 성도수를 가지고 있는 세계 선교의 주요국이 되어가고 있을 만큼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으로 몰락하여 있다.

이러한 현실관계 속에서 제 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는 열린다. 대회를 준비하는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최소한의

느낌은 하나님 안에서의 지체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저 한국 젊은이와 일본 청년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만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강의와 영성훈련을 통하여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책임과, 아시아와 세계 선교, 자국 복음화와 자기 갱신, 기독교 세계관과 선교 협력, 21세기 지도자의 모습을 배우고 익

힐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깨닫는 시간을 갖고 훈련될 것이다.

이번 대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나는 두 가지의 목표를 세웠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갱신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수 많은 학설과 사상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케 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가

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모세처럼, 울며 회개하던 다윗처럼, 잘못됨을 버리고 바른 신앙을 찾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던 바울처럼 자기 갱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자기가 갱신되고 개혁되어야만 교회와 국가를, 민족과 세계를 갱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좋은 군사와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는 훈련의 전환점을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자면 좋은 강철로 만든 연장처럼 연단되어야 한다. 무쇠로 만든 연장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길만한 강철이 되어야 한다. 강철이 되는 것은 말과 혀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철저히 준비하여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철이 되는 것으로도 넉넉치 않다. 쓸모있는 연장이 되도록 제련되고 갈리워지며 연단되어야 한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갱신과 일꾼됨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번 대회에 한국 청년만이 아니라 일본 청년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국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과의 대화와 훈련을 통하여 서로를 확인하고 지체임을 인식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려 한다. 그것이 충현의 제3세대와 21세기의 국가와 세계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될터이니가.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갱신과 일꾼됨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송 원 석 성도
(청년2부 면려회장)

여름철답지 않게 덥지도 않던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학부 여름 수양회가 충현기도원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비가 오지나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시원스레 불어주는 바람과 가끔씩 더위를 씻어주는 빗방울이 우리 대학부 회원들에게 부담없도록 마음씨주는 듯 적 시적기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는 가운데 나의 가슴 속에는 천국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뚝뚝 떨어졌다.

여기저기서 들리던 감사의 기도와, 서로 얼싸안고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던 형제들의 사랑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들이었다. 특히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미소인양, 가시관을 쓰시고도 우리를 위해 눈물흘리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양 우리들 눈앞에 떠오른 무지개 한 쌍은 더더욱 그러했다. 커다란 무지개는 여호와 하나님의 미소, 그 옆의 작고마한 무지개는 예수님의 인자하심이기라도 하듯이...

그날 저녁 무지개만으로도 나의 마음은 은혜로 충만했었고, 말쑥과 기도의 시간은 초대 교회의 하나되던 순간처럼 모두가 성령으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말씀의 시간

에 받았던 깨달음과 은혜가 지금도 눈을 감으면 돌이켜진다. 우리들 가슴에 아직도 남아 있는 야말렉을 허물기 위해 밤새워 기

나누던 대화는 밤이 새도록 그칠 줄을 몰랐고, 그 속에서 나에게 불어닥치던 주님의 무서운 질책과 따사로운 햇살 같은 위로하심...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진 나 자신에게서 나는 커다랗게 도사린 야말렉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야말렉은 하나님의 엄하신 질책으로 모래탑이 무너지듯 부수어졌다. 천만다행이었다. 그 엄하신 손길에도 어디 한 군데 다친 곳 없이 환부만을 도려낼 수 있었으니 말이다.

이러저러한 감사와 찬양을 가슴에 실은 나는 아쉬운 가운데 버스를 타고, 조용한 묵상으로 3박 4일 동안의 여정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은총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교회 앞마당에 다다랐다.

언제나 이맘때쯤이면 기다오는 수양회이지만 해마다 체험하는 각기 다른 은혜와 감사는 우리들 마음을 또 한번 감사함으로 충만케 한다.

감사와 은혜가 가득 담겨진 찬양을 들으며 자신을 둘러보며 드리는 기도에는 이제는 웬지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나태해진 Q.T와 기도의 생활을 위해서 좀더 자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의 야말렉 허물기

수양회를 다녀와서

장대선 학생
(대학부)

도했었고, 그 속에서 기도하던 나의 목소리로 자꾸만 열이 오른다. 서로서로 자신에 찬 모습으로

다락방 순례

함께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다락방

- 제7교구 간석2다락방 -

신앙 생활을 하는 데는 환경적 장애가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하나의 모티브가 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다락방이 있어 찾아가보았다. 그곳은 다름 아닌 제7교구 간석2다락방(지도 김광국 목사, 부지도 정연희 전도사, 다락방장 양은숙 집사).

제7교구 간석2다락방은 그 명칭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인천시 간석동 일대에 거주하는 충현 성도들로 구성된 다락방이다. 이 다락방의 식구들이 교회까지 나오는 데에는 평균 2시간 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왕복 4시간. 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 등으로 봉사하면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과 비교해본다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일은 물론이려니와 교구찬양대회, 올림픽, 홍해작전 등 교회의 각종 행사에도 한 마음으로 뭉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열성적인 신앙은 다락

방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주 90퍼센트의 출석률을 자랑하고 있는 간석2다락방은 매주 드리는 다락방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락방 예배를 마친 후 가지는 후집회를 통하여, 때와 시를 따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의 성도들도 열심으로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여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다락방 식구 가운데 한 성도가 얼마 전 상을 당했을 때 다락방 식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하는 아름다운 일도 있었다.

어려움에 처한 다락방 식구가 있으면 찾아가 기도하고 위로하며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던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전도회 탐방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 베드로전도회 제10지회 -

베드로전도회 제10지회(회장 김영수 집사)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이들은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이에 필요한 지원원을 아끼지 않는다.

먼저 베드로전도회 제10지회는 2개월에 한 번씩 교회 주변이나 터미널 등지로 나가 노방 전도를 실시한다. 행인들에게 전도지를 배포하고 《4영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회원들은 자신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모두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고 전도에 더욱 애진한다. 또한 이들은 작년부터 가평 상봉교회(김광택 목사 시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농촌 복음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전도회 제10지회가 남달리 활발한 전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데에는 회원간의 단

합과 친목이 대단한 힘이 되고 있다.

금년들이 처음 가진 월례회에 20명도 채 안되는 회원들이 모이게 되자, 회장 김영수 집사를 비롯한 뜻 있는 회원들이 전도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참여를 적극 권유하였고, 월례회도 각 가정을 방문하여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도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회원들이 하나씩 전도회 문을 두드리더니 지금은 10교구에 소속된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남자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회원들은 전도회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열성적으로 봉사할 연령층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충현교회를 섬기며,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 전도 사역에 힘써 나갈 것입

니다.”

이런 사람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6일엔 춘천소년원에서 전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어린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격려와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회원들은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새삼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다.

이들의 전도에 대한 열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회원들의 다수가 '91하기 농어촌전도대 파송기간과 때를 맞추어 휴가를 정하고,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부현교회로 파송될 이들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력할 것이라며 굳은 결의도 잊지 않았다.

수양회 통해

새롭게 태어난 대학부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춘천기독교원에서 수양회를 가진 대학부(부장 이훈 장로, 지도 김해규 목사)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은혜를 체험하였다.

대학부 회원들은 이 수양회에서 타성에 젖어 생활해오던 자신들의 안일함과, 교회와 사회에서 각자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랑과 책임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개인으로서, 대학부 회원으로서, 교회와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나갈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따라 생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먼저 이들은 개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음으로써 청년의 때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영적 훈련에 열심을 다하기로 하

였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청년의 정욕의 지배에서 철저히 벗어나고 세속적, 향락적인 문화에서 돌아설 것도 다짐하였다. 또한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성 있고 성실한 삶을 살기로 했다.

대학부 회원으로서 집회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공부에 일정한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며, 지체로서 서로 돌보고 격려해나갈 것이다.

또한 교회에서 대학부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잘 깨닫고 이를 잘 감당하도록 하며, 민족 복음화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헌신해나가기로 하였다. 오늘 교회와 민족 앞에 놓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음을 직시한 이들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증거하는 데 앞장설 것도 함께 다짐하였다.

수양회로 영적 각성과
개신 피하는 우리 교회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개최한 여름 성경학교 및 수양회의 열기로 교회가 뜨겁게 달아오른 한 주간이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1~5부, 중등1, 2부, 청년2, 3부, 장년1부, 사랑부가 교회와 충현기독교원과 외부 수양관에서 성경학교 및 수양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부흥회, 찬양, 천로역정, 주제별 토론회, 영화감상, 공작 활동, 미니올림픽, 퀴즈대회, 성경이야기 등 다채로

운 행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재부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이번 주에는 초등6부(22일~24일), 중등3부(22일~25일), 에바다부 학생부(25일~27일)이 교회와 기독원에서 성경학교와 수양회를 가질 예정이다. 충현의 온 성도들은 교회학교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야 할 것이다.

알 립 니 다

악혼 및 결혼을 하시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식을 치르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래의 서류를 교회에 제출하셔서 교회행정 업무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혼례 풍토의 정착을 위하여 청첩장을 돌리는 것을 자제하시고, 호화스런 혼례의 수수를 삼가합니다.

•제출서류:

1. 결혼신청서
2. 호적등본
3. 세례증명서

•제출방법:

주례 목사의 승락을 받아 교구 담임목사를 경유하여 교회 사무국에 제출.

에바다부

성경다독상 시상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성운 목사, 부지도 임태주 전도사) 성인반은 지난 주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은 성경다독상 시상식을 갖는다.

이들 행사는 농아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발전적인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요한전도회

제13지회

북악산에서 월례회

요한전도회 제13지회(회장 전용해 집사)는 지난 7월 17일(수) 북악산에서 야외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모두 2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예배를 드린 후, 간증 발표, 찬양부르기 등 다양한 순서들로 진행되었다. 이 월례회를 통하여 회원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청년1부 14일 연구수업

지난 14일 교회학교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 지도 김찬곤 목사)는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연구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날 연구수업을 통해 순명회 선행(11반 담임)은 Q.T(경건의 시간)의 중요성과 적용, 그리고 계속성에 관하여 연구 발표하였으며, 발표

후 교사들의 평가를 통하여 Q.T의 적용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앞으로도 청년1부에서는 연구수업을 통하여 교사의 자질 향상과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매달 연구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교육적인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다.

원 고 모 집

주간충현은 충현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은 원고를 기다립니다.

- 종 류: 간증문, 시, 수필, 제언, 미담
- 원고량: 2백자 원고지 9~10매
- 제출처: 소석관 103호

광야의 소리

◎... 제2회 목회자세미나 제2학기 종강. 그러나 소명에 사는 목회자들의 사역에는 방학이 없다.

◎... 하기 농어촌전도대원 119명 전국에 파송하다. 주여, 이복에 있는 도시마다, 마을마다에도

전도의 문을 여소서.

◎... 6,200명의 학생이 동원되고, 1,200명의 교사가 수고하는 여름성경학교, 비지땀을 흘리소서, 충현의 교사들이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